

# 동서남북의 기준은 자기 자신...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 익산 사자암 향봉 스님



향봉(香峰) 스님은 ... 동진출가해 1962년 사미계, 1967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불교신문사 편집국장·주필·주간·부사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총무원 조사국장 감찰국장 포교부장 총무부장과 중앙종회 사무처장,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조계종 경승단 초대단장과 청평사·보광사·내장사 주지를 지낸 스님은 인도 네팔 티베트 중국에서 15년을 머물기도 했다. 1973년 9월 <현대시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다. 저서로는 <사랑하며 용서하며>, <겨울잠마>, <움직이는 것은 아름답다>, <사람의길> 등 20여 권이 있다.

“죽비로 길들여진 수행 풍토서는 선지식이 나오기 어렵다.” “한국불교는 문종 파벌에 갇혀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시자가 대필하는 영무새 같은 법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

2009년 가을, 지리산 자락에서는 조계종을 발각 뒤집을 ‘쓴소리’가 쏟아져 나온 일이 있다. 남원 실상사에서 열렸던 야단법석에서였다. 당시 ‘야단법석’이라는 법상치 않은 이름의 행사를 열어 불교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몰고 왔던 향봉 스님(익산 사자암 주지)은 그 후로도 한차례 더 야단법석을 개최해 한국불교의 변화를 주도한 바 있다. 8월 4~7일 장성 백양사에서 있을 세 번째 야단법석을 준비 중인 향봉 스님을 만났다.

향봉 스님이 주지로 있는 미륵산 사자암은 백제시대 사자사가 있던 곳으로 전해지는 절터이다. 미륵사지 뒤편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1993년 ‘사자사(獅子寺)’ 명문이 있는 기와가 출토됐다. <삼국유사>에는 “백제 무왕과 왕비(선화)가 사자사로 행차하던 중 용화산 아래 연못에서 미륵삼존불이 출현해 그 인연으로 미륵사를 세웠다”고 전한다.

스님은 최근 야단법석 세 번째 마당을 열기에 앞서 자신이 체득한 불교사상을 풀어낸 <일체유심조>와 독특한 선기로 선문답을 풀어 쓴 <선문답>, 시집 <행복을 위한 자유를 위한>을 펴내기도 했다. 사자암 마당에서 책 소식과 함께 안부를 건넨 나그네에게 향봉 스님은 “앞으로 20권은 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나이 마흔에 철들어

향봉 스님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다. 스님은 초등 학교 5~6학년 때 가난을 이유로 동진출가했다. 10대부터 해인사에서 지냈던 스님은 불교신문사와 종단의 중심에서 10여 년간 소임을 봤다. 이 때를 향봉 스님은 “잘못된 인연으로 학문과 수행할 기회를 놓친 시기”라고 표현했다.

잘못된 인연(?)으로 방향하던 스님이 제대로 공부를 하게된 계기가 있었다. 나이 마흔이 지나 내장사 주지를 지낼 때였다. 속가 부친이 돌아가셨다. 장례를 위해 속가를 찾았더니 어머니가 붕투를 건네며 “아버지의 49재를 내장사에서 지내 달라”고 말했다. 누나들도 말을 보았다. “아버지가 극락왕생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향봉 스님은 포교부장 소임도 지냈지만 말문이 막혔다. “영혼이 존재하는지, 49재 공양을 한다고 해서 살아생전의 업장이 소멸될 수 있는 것인지, 내생이 존재하는지 등 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스님을 괴롭혔다.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의문들이 향봉 스님을 철들게 했다. 스님은 무작정 바람을 메고 인도로 떠났다. 향봉 스님은 영어를 못해 의사소통도 안되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두어 달이 채 못돼 가져갔던 1000달러를 모두 써버렸다. 돈이 없어 방을 구할 수도 없었다. 향봉 스님은 이 공원, 저 공원을 돌며 노숙을 했다. 말라리아 등 풍토병에 걸려 죽을 고비도 넘겼다.

이를 보다 못해 속가 형인 정다운 스님이 유학생

숙소를 잡아 주고, 약도 보내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무(無)자 화두를 들고 있던 때였다. 약과 함께 담긴 작은 포켓 달력을 보고 있었다. 우연히 달력을 넘기는데 환하게 불이 쬐였다. 조명이 켜진 것이 아니라 어떤 빛이었다. 스님은 그 ‘빛’을 본 종교적 체험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향봉 스님은 이게 뭐가 싫어 어디동절하다가, 정다운 스님이 예전에 보내주었던 <전수경> 강의집을 펴 봤다.

### ‘입(口)’ 아닌 것 없다

<전수경>은 그 시작에서 구업을 강조한다. 신·구·의(身口意) 삼업 중에서도 악구(惡口, 악담), 양설(兩舌, 이간질시키는 말), 기어(綺語, 꾸미는 말), 망어(妄語, 거짓말) 등 구업으로 짓는 업은 네 가지로 가장 많다.

향봉 스님은 “코는 국 냄새 맡는 입이고, 눈은 보는 입이고, 귀는 듣는 입이다. 우리 몸에는 다스려야 할 입이 아홉 개나 된다”며 “정구업(淨口業)의 바른 해석은 몸과 마음을 맑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금강경> 사구계 가운데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 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마땅히 머무는바 없이 그 생각을 내라’라고 해석한다.

### 코는 냄새 맡는 입

### 눈은 보는 입, 귀는 듣는 입

### ‘정구업’은 몸과 마음 맑게 하라는 뜻

향봉 스님은 “이것은 ‘한 생각이 일어났거든 마땅히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로 바꿔보자”고 말했다. 생노병사는 모두 집착에서 온다. 스님은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하루에 천만가지 생각을 한다.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갖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중생이 알고 있는 모든 원인이 집착 때문이라는 스님의 설명은 <금강경>에 설해진 수자상(壽者相)의 수(壽)를 ‘목숨 수’가 아닌 ‘누릴 수’로 봐야한다는 말로 이어졌다. 수자상은 삶에 대한 애착·집착이 아니라, 중생이 알고 있는 고통의 모든 원인이 집착에 있다는 말이다.

향봉 스님은 “나만 ‘목숨 수’가 ‘누릴 수’의 의미도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 고어에서 보면 둘의 쓰임이 같다”고 말했다.

### 유교식 중도 이해는 잘못

팔만대장경의 핵심은 중도(中道)와 연기법적이다. 향봉 스님은 “많은 스님들이 중도(中道)를 잘 모르고 헤매고 있다. 중도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중도를 유교의 중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용(中庸)>은 인(仁) 의(義) 예(禮) 지(知) 신(信)을 생활의 기본 덕목으로 삼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온당하게, 또는 지나치거나 모자람 없이 알맞게 덕과 도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는 가르침이다. 예와 지 등 무엇 하나 지나치면 화를 부르기 때문이다.

향봉 스님은 “불교의 중도사상은 중용과 근본을 달리한다”며 “중용이 양변불락(兩邊不落)사상이라면 중도는 양변무애(兩邊無碍)이자 무변중심(無邊中心)사상이다”라고 말했다. 불교의 중도에는 좌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두리도 없다는 설명이다.

스님이 나그네에게 물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쪽입니까?”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서쪽입니까?” 나그네가 답했다.

“내가 서 있는 곳부터 해 뜨는 방향이 동쪽입니다. (내가 서있는 자리에서) 해가 지는 방향이 서쪽입니다.”

향봉 스님은 다상을 탁! 하고 치며 “맞다”고 말했다.

“동서남북의 구분은 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중앙에는 ‘내’가 있습니다. 모서리에 앉아도 ‘내’가 앉으면 그곳이 중앙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서 있더라도 내가 세상의 중심에서 있는 것이며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스님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이니 내가 곧 부처인 것이요, 내가 서있는 자리가 곧 정토이다”라고 말했다.

향봉 스님의 말에 따르면,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은 불교의 중도를 설명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의 탄생계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비롯해 즉심시불(即心是佛) 심외무불(心外無佛) 등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가르침과 법등명(法燈明) 자등명(自燈明)의 최후의 유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불조의 해명을 꿰뚫은 이같은 가르침을 <법화경>은 ‘번뇌가 보리요 중생의 곧 부처’라고 했다.

향봉 스님은 “오늘이, 금생이 제일 중요하다. 불교는 오늘의 종교”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우울하다거나, 돈 없다고 불평하면 안된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성경>에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구하지 말라, 구할 수록 마음이 어지럽다’고 했습니다. ‘두드리지 말라. 언제나 문을 열려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 마음이 윤회한다

향봉 스님은 “고정관념을 깨로 관점을 바꾸고 마음이 열려야 세상이 열린다”고 말했다. 목탁소리에 의해 운명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말이다. 스님은 “참회한다고 업장이 녹지 않는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봉 스님은 “한국불교는 브라만(우주)을 통한 창조설은 믿지 않으면서 아트만(거짓된 나)을 믿는다”

# 찬 덕 불 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전선(케이블) -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범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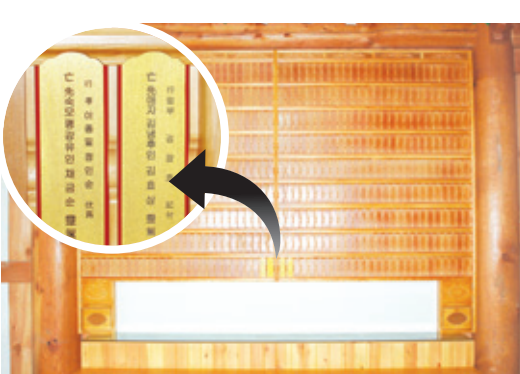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윤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 아름다운등



팔각점등영가등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중 등

##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 생각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육도윤회는 죽어서가 아니라  
내마음이 어떻게 따라  
지금 생에서 겪는 것

고 지적했다. 불교는 '나'를 이루는 안이비설신의 등은 모두 연기(緣起)에 의한 것으로 '나'는 없다고 말한다. 향봉 스님의 주장은 부처님이 '무아(無我)'라고 설했음에도 유독 한국불교는 '나'의 허상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아트만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찰경제와 연관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나'가 있다고 해야 49재의 공양을 받을 주체도 있고 참회기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육아여경(玉耶女經)에는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 등 일곱 가지 아내가 나온다.

향봉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전생의 업장 운운하며 선업을 닦아야 좋은 아내를 만난다고 말한다"면서 "사실은 한 여자에 일곱 가지 모습이 있는 것이다. 사람을 하나를 두고 내 마음의 윤회에 의해 일곱 가지 모습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육도윤회도 죽어서 나고 죽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느냐에 따라 금생에서 겪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한두 시간 묵타소리에 의지해 일생의 업장을 녹이려는 행위는 이치에 안맞는다는 주장이다.

얼마 전, 사자암에서는 논란이 있었다. 조계종에서 멸빈된 정다운 스님이 사자암 법당을 빌어 재(齋)를 봉행했기 때문이었다. 향봉 스님의 주장대로라면 부질없고, 하지말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스님은 "출가자에게도 부모·형제가 있다. 종단서 감찰국장을 하면서 형인 정다운 스님의 징계를 먼저 요청했던 나이지만, 할아버지가 된 형이 법당을 빌려달라는 청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자리씩 하면서 '방하착' 하라 해서야**

한국 선원 대부분은 짜여진 정진시간표에 의해 죽비소리로 앉고 서기를 반복한다.

향봉 스님은 "한국 선원은 좌선의 뿌리가 너무 깊게 박혀 있다. 50분 좌선하고 10분 쉬는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마음 열린 도인이 출현하기란 요원하다"고 탄식했다.

무문관도 잘못된 수행 풍토라 지적했다. 독방은 만들어 두되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것. 대자유를 얻겠다는 출가자를 사육하듯 가둬두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과 상통하는 말이다.

스님은 "출가 51년 동안 어느 조실·방장스님이 후학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은퇴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이판이나 사판이나 모두 자리에 연연하며 집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향봉 스님은 한국불교에서 범거량이 사라졌음을 한탄했다. 2년 전 지리산에서도 외쳤지만 소용 없었다. "법을 논하는 자리라면 누구든 찾아오라", "어디든 부르면 가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범거량을 하자는 이는 없었다. 그래서 스님은 <선문답>을 펴냈다고 했다. 책으로도 남겨두면 언젠가 눈 밝은 이가 찾아와 범거량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성역 없는 쓴소리는 계속된다**

향봉 스님은 조계종이 추진 중인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이 결사와 민족문화수호운동 추진 6개월 여만에 청와대를 찾아간 것을 "백기를 들었다"라고 표현했다. "절망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향봉 스님은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이 5대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바람이 모두 빠진 풍선을 두고 대중에게 바람을 불어넣으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사바세계에서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길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봉 스님은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스님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 상처를 덮어만 두면 더 큰병이 온다"고 설명했다. 스님의 쓴소리는 동진출가해 오늘의 자신을 있게 한 한국불교예의 살신성인(殺身成仁)이었다.

향봉 스님은 "방장·선원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내가 최초"라고 말했다. 이어 "2009년 아단법석에서 이슈가 됐던 고액의 해제비 부분만 해도 일 정액이 넘는 것은 승려노후복지기금으로 사용하기로 선원수좌회가 결정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조계종 선원수좌회가 편찬한 <선원정규>에 '방장 등은 승납과 안거수를 따지지 말자'고 명문화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했다.

향봉 스님의 쓴소리는 성역이 없었다. 미륵산 중턱 사자암에 앉아 너른 익산평야를 한눈에 내려보았 스님의 견해는 한국불교의 막힌 곳을 꿰뚫고 있었다. 한국불교예의 총질이 담긴 스님의 법문은 8월 4-7일 백양사 아단법석에서 만날 수 있다. 백양사 (061)392-0100 **조동섭 기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 의발

절기 때문일까. 아니다. 절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일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시선을 머물만한 곳을 찾기가 만만치 않다. 한 때는 미니스커트의 길이를 무릎 위 몇 센티미터까지 허용한다고 규정하기도 했지만 그 규정은 유아무야 사라지고 말았다.

젊은이들 사이에 흔히 쓰는 말로 '하체가 부실하다'라는 말을 쓴다고 한다. 생소한 말이라서 무슨 말 뜻이냐고 물은 적이 있다. 바지의 길이가 초미니로 짧아진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러한 현실을 기성세대가 꼭 탓할 일만은 아닌 듯하다. 어쨌든 세상은 젊은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기 마련이다. 의상문화의 트렌드 흐름으로 표현한다면 적절할 듯하다.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마하가섭(摩訶迦葉)은 두타행(頭陀行)에 전념 하였다. 바라문 출신인 그는 아난(阿難)과 나는 대화가 있다.

<상승부경전> 권2에 마하가섭이 아난을 '젊은이'라고 부른 것에 대하여 "마하가섭이여! 나의 두발(頭髮)도 희색이 되었으니 다시는 나를 젊음이라고 부르지 마세요"라고 아난이 말했다. 한 비구니는 '가섭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교도였는데 정통의 제자 아난을 젊은이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치지 않는가'라고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가섭은 '부처님이 본인이 입었던 옷을 나에게 주었으므로 부처님의 옷을 받은 나아말로 스승의 가르침을 계승한 정통(正統)이다'라고 말했다.

옷을 범어로 cīvara라고 한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옷이라고 하나 불교와 자이나교의 수행자들이 입는 분소의(糞掃衣)를 이르는 말이다. 위 경전의 내용에서 이심전심의 유형(有形)의 징표가 되었던 것이다. 스승으로부터 옷을 받는 것이 곧 법을 계승하는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전거에 의하여 선종에서는 가섭이 부처님으로부터 옷을 받았다는 것을 소중히 여겨 부처님의 정법은 마하가섭에게 전해졌다고 여기고 있었다.

선종에서는 일반적으로 세 벌의 옷을 말한다. 울다라승·승가리·안타회이다. 울다라승은 정장용이고, 승가리는 외출용이며 안타회는 작업

용의 옷이다.

선종에서 최초에는 옷 만이었으나 후대에 가면서 발우를 더하여 징표로 삼았다. 발우는 범어로 pātra 라고 한다. 동사로는 '마시다'·'들이키다'·'삼키다'의 뜻이고 명사는 '마시는 그릇'이라는 말이다. 동의어로 Bāra가 있다. '아가리'·'종지'란 말이다.

발우는 원래 철로 만든 발우(鐵鉢)와 기와로 만든 발우(瓦鉢)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나무로 만든 발우(木鉢)를 쓰고 있다.

발우야 말로 수행자가 탁발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일 뿐 아니라 일용품인 것이다. 중국에서 의발이란 불법(佛法)이요 불도(佛道)의 의미로 이해되었다. 스승이 제자에게 의발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을 전한다는 의미가 되었다. 이심전심의 징표는 의발로 표시되었다.

언제부터인가 그 의발의 전승은 본래 의미가 상당히 탈색되기 시작하였다. 서릿발 같은 전법


분소의와 발우를 말하는  
의발은 불법·불도 의미  
이심전심의 징표로 쓰여

의 세계가 물질이란 이끼가 덕지 덕지 끼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최근거리에서 조석으로 보고 따르는 제자가 있으면 의발을 전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쉬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발의 전승이 불조의 혜명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에는 미미할 뿐이다. 부처님의 본래 마음에 부합하는 일이 아닐 터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열반시에 자리를 지켜보지 못했던 마하가섭에게 법을 부촉하였다. 당시 그는 스승 곁에 있지 않고 의·식·주에 관한 탐욕을 없애는 두타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체가 부실한 젊은이여! 그대가 입을 짚아진 옷 길이가 못지않게 주시할게 있다. 어느 늙은이에게 빠져 잔주가 심한 자신의 영혼을 구출하는 일이다.





# LEADER



##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직할 종단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총정대행 : 목탁 혜은    부원장 : 금당 법성  
 포교원장 : 불도 천장    교육원장 : 현담 송광    감찰원장 : 일해 공심    비구니 회장 : 대행 보현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